



반세기 돈 끼호테 사랑으로 벗긴 400년 오해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민용태 교수
'진짜 돈 끼호테' 를 찾아...
세르반테스의 《돈 끼호테》 완역

“번역은 창작보다 고달픈 일입니다. 창작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미라도 있지만 주어진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번역은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민용태(63) 교수는 혀를 내둘렀다. 10여 년 동안 번역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면서도 이번처럼 쉽지 않은 작업은 또한 처음이다. 창비에서 출간된 《돈 끼호테》가 그 문제작이다. 제법 묵직한 책 두 권을 앞에 꺼내 놓곤 ‘이제는 펼쳐보는 것도 겁날 정도’ 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깊은 감회의 다른 표현일 터다.

민 교수가 《돈 끼호테》와 인연을 맺은 것은 45년 전.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에스빠냐 국립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세르반테스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긴 애초부터 돈 끼호테 때문에 스페인어학과를 택했다는 그다.

《돈 끼호테》, 뒤죽박죽 자유롭게 풀어놓은 이야기...

관점과 시대 따라 해석 달라

“한국문학만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문학과 가장 관계가 없었던 나

리의 문학과 우리 문학을 접합시킴으로써 ‘잡종강세雜種強勢’의 문학을 낳고 자 했던 소망을 가졌지요. 그래서 스페인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겨우 《돈 끼호테》를 내놓고보니 묵은 체증이 가리앉은 기분입니다. 처음 가졌던 소망에 대한, 그리고 스페인어를 하는 한국사람으로서 조국에 대한 빛을 담은 듯도 해요. 한국어로 된 첫 완역본인 만큼 저로서는 그 감회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서재 한 쪽에 쌓인, 돈 끼호테에 관한 두툽한 여러 권의 닳고 닳은 책들이 그 간의 세월과 번역작업의 고됨을 보여준다.

그는 1605년판 원전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세르반테스의 문체와 수사법의 원뜻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했다. 주석도 직접 자료를 찾아 가장 쉽고, 자세하게 달았다. 각 장의 제목을 원전에 있던 그대로의 긴 제목으로 사용하고 세르반테스의 실수도 고치지 않고 실었다. 그가 만들어낸 ‘한국판 《돈 끼호테》’는 돈 끼호테에 대한 애정, 그 이상의 집착이었다.

“이승만 박사는 ‘나는 이 사회의 돈 끼호테’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라는 뜻이지요. 한국 사람은 스스로를 돈 끼호테와

동일시하면서까지 돈 끼호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돈 끼호떼》를 읽어보거나 했을까요? 흔히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진수(眞髓)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돈 끼호떼》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깊이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증역에, 옛날 말투를 그대로 사용한 번역으로 독자들은 이런 재미를 누리지 못했어요. 소설은 그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잖아요? 세르반테스는 이런 마음으로 《돈 끼호떼》를 썼습니다.”

《돈 끼호떼》는 풀려놓은 이야기, 그 자체다. 누구든지 오고가며 어떤 얘기를 더해도 좋고 빼도 좋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리되는 까닭이며, 긴 세월을 두고 많은 소설가들이 《돈 끼호떼》에 집중하고, 감탄하는 이유다.

흥미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돈 끼호떼》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이 매우 자유롭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소설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돈 끼호떼의 하인 산초 빠사의 아내 이름이 소설 안에 다섯 종류로 나오는가 하면, 날짜가 뒤집어지기 일쑤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분명 도둑맞은 당나귀를, 뒤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타고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목들이지만 출판업자가 텍스트의 일부를 ‘분실’ 한 실수가 아니라면, 이는 세르반테스의 ‘건망증’이라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다. 《돈 끼호떼》를 쓸 당시의 세르반테스의 나이와 비슷한 지금, 워낙 소설이 방대하다보니 그 자신도 등장인물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줄거리의 앞뒤가 헷갈릴 때가 있다.

“당시 세르반테스는 1권에서 나타난 여러 실수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2권을 쓰면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유로운 소설 형태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오히려 즐겼던 듯싶어요. 1권에서의 실수를 2권에서는 또 다른 애깃거리로 만드는가 하면 배운 것 없는 농부의 캐릭터로 나오는 산초 빠사의 대사에 너무나 유식한 말을 써놓고는 괄호 안에 ‘이건 산초의 말 같지 않지만 그대로 적어둔다’라고 쓰기도 했거든요. 너무나 자유로운 소설입니다. 아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것이 《돈 끼호떼》의 매력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여주려 시대를 앞서간 명인, ‘돈 끼호떼’

서구 최초의 근대소설이면서 이토록 자유로운 상상력을 형성한 《돈 끼호떼》는 이후 19세기 리얼리즘 작가들이 효시로 받들었지만 그 비슷한 소설은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 교수는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지나치게 강한 국내 작가들과 독자의 인식, 그리고 한국소설의 ‘위선적 리얼리즘’을 우려한다.

“최근 대하소설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처럼 현실을 넓게 인지하지 못하는 소설들은 말하자면 가장 피상적인 리얼리즘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모든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 사건 모두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위선적 리얼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세르반테스는 그 자신을 《돈 끼호떼》의 ‘보트아버지’라고 말했다. 작가조차 작품 속 주인공 《돈 끼호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 ‘현명한 독자여, 알아

서 해석하시라’는 태도다. 결국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래서 “《돈 끼호떼》가 독자들은 물론, 특히 소설가들에게도 두루 읽혔으면 한다”는 민 교수는 “한국문학이 리얼리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돈 끼호떼》의 완역본 출간이 갖는 의의는 크다”고 말했다.

편협한 리얼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 끼호떼는 노망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기사소설을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2세기 전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돈 끼호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기존의 《돈 끼호떼》, 혹은 인물 ‘돈 끼호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권하며 민 교수가 정의하는 ‘돈 끼호떼 형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뒤집어 놓는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돈 끼호떼는 주어진 사회에 대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직접 현실에 뛰어들었던 실천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회에 부채한 자유, 양심,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 말이지요. 이를 맹목적 이상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해요. 오늘날의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여주려고 한 돈 끼호떼는 해안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간 명인이었지요. 로신안떼를 타고 라 만치의 풍차를 향해 달리는 장면에서도 돈 끼호떼는 풍차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함몰시키는 미래의 거인 모습을 본 것이에요.”

민 교수의 ‘머리말에 항상 놓여 있던 책’ 《돈 끼호떼》. 반세기 가까이 앓아온 ‘돈 끼호떼 사랑’은 앞으로도 스러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스페인 문학의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16, 17세기 문학을 연구하며 다음 저서를 준비중인 민 교수는 “그저 독자들이 이 책으로 인해 돈 끼호떼의 매력을 알고 재미있게 읽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시종 호탕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돈 끼호떼론’을 펼치는 민 교수야말로 시대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향을 향해 오십이 넘은 나이에 굶주린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나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돈 끼호떼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추천**

취재_홍이현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